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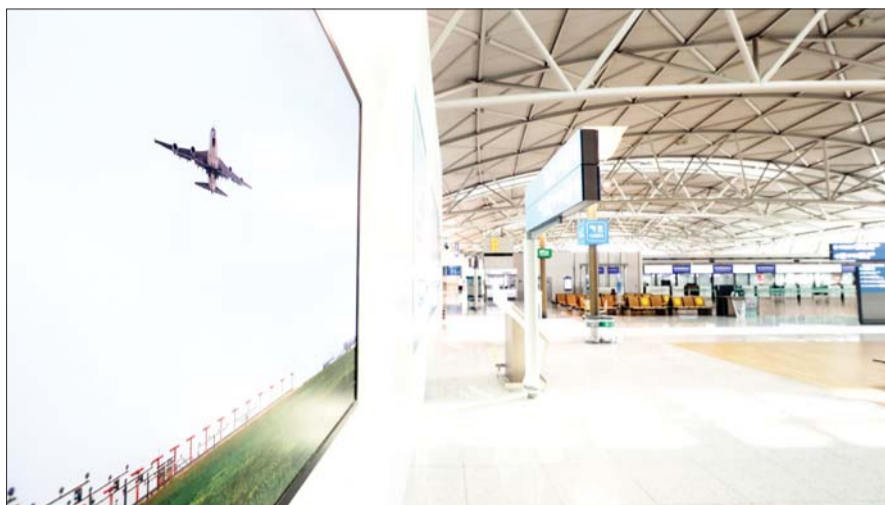
자본잠식 위기 직면한 항공업계… 재무구조 개선 ‘안간힘’

코로나 장기화·재확산에 ‘재점화’ 제주항공, 무상감자·유상증자 추진 진에어 등 다수 LCC 자본잠식 상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결국 자본잠식 위기에 놓였다. 재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 감자, 유상증자 등 안간힘에 나서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코로나 여파로 경영난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저비용 항공사가 이미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국제선을 띄우지 못하면서 지난해부터 적자만 기록한 탓이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쌓이면서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문제는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으면 한국거래소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뉴시스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50% 이상의 자본잠식률이 2년 연속 유지되면 상장폐지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재무구조 개선 명령에도 50% 이상 자본잠식률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자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도 자본잠식을 피하지는 못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 기준 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잠식률은 약 28%다. 이에 따라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를 1000원으로 줄이는 무상감자를 한다. 이후 약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해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감자는 내달 13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모회사 애경그룹도 참여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자본잠식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자본잠식 및 관리종목 지정 등 경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른 저비용 항공사도 자본잠식 위기에 놓였기는 마찬가지다. LCC 가운데 에어서울과 플라이강원은 이미 자본총계마저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에어서울은 지난해 말 기준 -838억 원, 플라이강원은 올해 1분기 기준 -90억 원의 자본총계를 기록했다.

다만 플라이강원은 결손 보전을 위해

강제, 무상소각 방식으로 무상감자를 실시할 방침이다. 무상감자에 따라 자본금은 414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줄고, 보통 주식과 기타 주식 수는 각각 69만8899주, 95만8021주로 감소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0일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밖에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올해 1분기 기준 진에어는 약 42%, 에어부산은 34%의 자본잠식률을 나타냈다. 티웨이항공은 정상 운항 중인 LCC 중 유일하게 자본잠식에 빠지지 않았다.

다만 비상장사인 에어로케이항공은 첫 취항 한지 약 세 달밖에 되지 않아 재무구조 등 공시 의무가 없어 자본잠식 여부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도 경영난 극복을 위해 투자 유치를 지속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삼성전자, 워커히에 ‘포레스트 시네마’ 오픈

‘빔 프로젝트’ 체험 행사 야외 피크닉 공간에 마련

삼성전자가 홈엔터테인먼트 기술로 도심 속 피크닉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11일 워커히 호텔앤리조트와 손잡고 포레스트 시네마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포레스트 시네마는 삼성전자 프리미엄 빔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체험 공간은 워커히 호텔앤리조트 투숙객 전용 야외 피크닉 공간인 포레스트 파크 공용 공간과 텐트 두 곳에 설치된다.

삼성전자는 투숙객들이 더 프리미어가 구현하는 화질과 색감을 경험하며 도심 속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전무는 “최근 홈엔터테인먼트 수요가 늘어남에



삼성전자가 워커히 호텔앤리조트와 손잡고 포레스트 시네마를 개장한다.

/삼성전자

따라 더 프리미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뜨겁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라이프스타일 TV를 체험할 수 있는 소비자 접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포레스트 시네마 체험 고객 대상 특별 혜택으로 더 프리미어와 롤러블 스크린 구매 시 현대 리바트 가구장·피자할 외식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한창대 수습기자 cdl1@

반도체 초격차 기대 속 ‘총수 부재’ 발목

» 1면 ‘수익성 극대화’서 계속

메모리 시장 점유율도 다시 늘려가는 모습이다. 옴디아에 따르면 1분기 D램 시장 삼성전자 점유율은 41.2%로 전년 대비 0.02% 늘었다. 5분기 연속 하락 끝에 모처럼 반등이다. 수치적으로는 의미가 큰 것은 아니지만, 4세대 10나노(1a) D램을 한발 앞서 양산하는 등 경쟁사 추격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낸드플래시 역시 삼성전자가 33.4% 점유율로 1위를 지켜냈다.

스마트폰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49%에 달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D램은 54%, 낸드는 42%다.

하반기에는 1a D램과 176단 낸드를 새로 내놓을 예정,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수익률도 더욱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투자 결정. 삼성전자가 미중 무역분쟁 사이에서 역할론이 커지고 있지만, 현지 투자를 결정하고 나서도 여전히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다. 텍사스 오스틴 등 후보지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부재로 최종 결

정을 피하고 있다는 추측이다.

의미 있는 M&A도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100조원을 넘는 실탄을 묵혀두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수익성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저평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있어도 정작 기업 가치는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

오랫동안 정체상태인 매출액이 대표적인 지표다. 삼성전자는 2012년 매출 200조원을 넘겼지만, 9년째인 올해까지도 매출 200조원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00조원을 돌파해 4년만에 200조원을 넘어선 것과는 다른 행보다.

주기도 수익성 개선 소식에도 오히려 떨어졌다. 잠정실적을 발표한 7월 8일 종가는 전날보다 1% 떨어진 주당 79900원, 다음날인 9일에는 7만9400원으로 추가 하락하며 ‘6만전자’ 공포까지 제기된다.

/김재용 기자 juk@

‘여름휴가’ 대기업은 5일 이상, 중소기업은 3일

경총, 하계휴가 실태조사 제조업은 단기 집중적 휴가 기업 2곳 중 1곳 ‘휴가비 지급’

300인 이상 대기업은 여름 휴가를 5일 이상 갖는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3일을 쉬는 곳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72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1년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하계휴가 일수는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5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고, 300인 미만은 ‘3일’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하계휴가 일수는 지난해(3.6일)와 거의 유사한 평균 3.7일로 집계됐

다.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5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고, 300인 미만은 ‘3일’이라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업종별로 제조업은 ‘단기간(약 1주일) 집중적으로 휴가 실시’가 69.3%로 가장 높았고,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넓은 기간(1~2개월) 동안 휴가 실시’가 80.6%로 가장 높았다.

하계휴가 실시기업 전체로는 ‘단기간(약 1주일)’이라는 응답이 58.6%로 가장 높았고, ‘장기간(1~2개월)’이라는 응답은 34.1%로 조사됐다.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48.1%는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2020년(49.1%)에 비해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0.6%p(52.0→51.4%) 감소, 300인 미만은 1.1%p(48.7→47.6%) 감소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45.4%는 최근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년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46.4%)이 300인 이상 기업(38.1%)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21.4%)이 300인 미만 기업(1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4.5%는 ‘내년 상반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경기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은 ‘2022년 상반기’(44.5%)가 가장 많았다. 이어 ‘2022년 하반기’(24.2%), ‘2021년 하반기’(14.1%), ‘2023년 이후’(11.6%), ‘2021년 상반기부터 회복 시작’(5.6%) 순이다. /양성운 기자 ysw@

해외 매체들 ‘LG 올레드 에보’에 극찬

美·유럽 등서 호평… “최고 TV”

LG 올레드 에보가 해외 매체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LG전자는 11일 LG 올레드 에보가 영국·스페인 소비자매체 성능평가에서 최고 TV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매체 평가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성능을 비교한 것이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매체 ‘위치?’는 LG 올레드 에보에 매체 추천 제품 5개 가운데 최고 평점인 81%를 부여했다. LG 올레드 에보는 스페인 소비자매체 오씨유 콤프라마에스트라에

서도 최고 평점인 82점을 받았다. 두 매체는 “완벽에 가까운 TV”, “단점이 없다” 등의 평가를 남겼다.

LG전자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등 해외 유력 매체들에서도 LG 올레드 에보의 호평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LG 올레드 에보를 올해 최고의 TV 가운데 최고 TV로 선정했다. 미국 유력 IT 전문매체 디지털트렌드 역시 LG 올레드 에보를 올해 최고의 TV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LG 올레드 에보가 영국 IT 매체 왓하이파이·T3 등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창대 수습기자